



들어가기 전

· 본 시나리오에는 카오시움 사의 TRPG 게임. 크툴루의 부름(Call of Cthulhu) 7판 룰을 사용하는 비공식 팬메이드 시나리오입니다. 시나리오 내에 등장하는 단체, 인명, 장소 등은 어디까지나 가상에 기반하고 있으며, 현실의 사건/인물/장소와 흡사한 요소가 발견되더라도 이는 어디까지나 우연일 뿐. 실존하는 인물이나 지역, 단체와는 관련이 없습니다.

· 본 시나리오에는 해당사의 저작권을 침해할 의도가 없으며 공개 범위는 초여명사의 가이드라인을 따릅니다.

· 본 시나리오에는 크툴루 신화에 대한 독자적인 해석이 포함되어 있으며 창작 신화생물이 등장합니다.

· 본 시나리오에 등장하는 지리, 역사적 요소들 중에선 실제적인 고증에 맞지 않는 부분이 등장할수도 있으나, 시나리오적 허용으로 여기고 너그러이 양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본 시나리오에는 다음과 같은 비윤리적이거나 불쾌하게 여겨질 수 있는 소재들이 등장합니다. 불편하신 분들은 플레이를 재고해주시고, 키퍼 분들은 플레이어 분들에게 해당 요소들에 대해 꼭 안내해주시길 바랍니다.

직접적 묘사: 살해, 폭력, 신체변형, 식인

· 테스트 플레이를 거치지 않은 시나리오이며, 시나리오 본문이 불시에 수정될 수도 있습니다.

- 개변한 시나리오의 재배포만 금지할 뿐, 개변에 대해서는 어떤 제한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 노롤북 키퍼링을 금지합니다.
 - 악의적 비난, 비하, 멸칭 사용, 공개된 장소에서의 스포일러를 금지합니다.
 - 라이터에게 후기 및 로그 전달, 문의를 원하실 경우 트위터 디엠(@rolllikeits1949)으로 부탁드립니다.
 - 시나리오 약칭은 '길티마스'로 부탁드립니다.
-

A VERY GUILTY CHRISTMAS

w. 1949

*He's making a list,
He's checking it twice,
He's gonna find out who's naughty or nice,
Santa Claus is coming to town!*

-SANTA CLAUS IS COMING TO TOWN

개요

징글 벨, 징글 벨!

전쟁이 끝나고, 모든 것이 풍요롭고 완벽한 시절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일년 중 가장 근사한 시간이 찾아왔죠-바로 크리스마스 시즌이!

탐사자들은 모두가 집으로 돌아간 이 크리스마스 시즌, 학교에 남아 이브 기념 파티를 열어 이 시간을 만끽하고자 합니다. 모두 청춘의 추억이 될테니까요. 밖에선 흰 눈이 날리고, 에그노그는 딱 좋게 부드럽고, 전축에서는 빙 크로스비가 달콤하게 메리 크리스마스를 노래합니다. 뭐가 잘못될 수 있겠어요? 하지만 이 명랑한 분위기는 뜻밖의 살인사건이 일어나며 뒤집히고 맙니다.

정신을 차려보니 눈 앞에 붉고 흰 뚱뚱한 시체가 있건만. 아직 상황 파악을 하지 못한 젊고 어벙한 살인마들(!)에게는 모든게 혼란스럽기만 합니다. 우리가 살인을 저질렀다고? 그럴리가 없다고 외치고 싶지만 우리 손에 묻어있는 이 피는 다 뭔가요? 아니 잠시만...그보다...우리가 산타클로스를 죽인 것 같은데. 그럼 크리스마스는 어찌죠?

자, 산타클로스 살인마들. 모두 단단히 마음 먹는게 좋을 겁니다. 올해는 더럽기 짝이 없는 크리스마스가 될테니까요.

하위, 몬태규, 그리고 윌리: 일명 '맘모스 보이즈'에게

<A Very Guilty Christmas>

약칭 <길티마스>

룰: 크툴루의 부름 7판

인원: 다인+KPC

키퍼링 난이도: 중

플레이 난이도: 중

배경: 1940년대 후반~1950년대 미국, 크리스마스 이브의 대학교 기숙사

플레이타임: 비교적 짧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로스트, 사망 가능성: O

발광 가능성: O

관계: **KPC**와 탐사자들은 모두 미시간 주, 수세인트 마리에 위치한 호레이스 마몬트 대학교의 학생들입니다. 탐사자들은 모두 **KPC**와 아주 친밀하며, 탐사자들끼리도 최소한 함께 크리스마스 파티를 즐길 수 있을만큼 가까워야 합니다.

- 탐사자들이 살인을 저지르며, 상황이 사람에 따라 다소 강제성을 띄고 있다고 느끼는 방식으로 진행될 수도 있습니다. 이를 원치 않으시는 분들은 플레이를 재고해 주세요.
- 한번쯤 산타를 죽여보고 싶었던 분들에게 추천합니다.

진상

메리-모독적인 크리스마스!

크람푸스에 대해 아시나요? 성 니콜라스, 혹은 산타 클로스의 동료이자 안티테제, 나쁜 아이들을 잡아간다는 괴물. 그래요, 뻔한 민간 전설 중 하나처럼 여겨지겠죠. 하지만 이 크리스마스 악마의 기원은 훨씬 더 오래되고 불온한 것입니다. 이 반은 염소, 반은 악마인 모습을 한 존재는 동유럽과 중부 유럽에서 오랜 시간 팽배했던 '슈브 니구라스' 숭배가 기독교 신앙을 만나 변형된 것입니다. 아주 오래 전, '위대한 어미 염소'를 모시는 유럽의 이도교들은 낮이 길어지는 시기인 **12월 25일**마다 이 사악한 풍요의 신을 기리며 인신공양과 그 밖에 입에 담을 수 없는 일들을 벌였습니다. 그러나 기독교가 유럽에 퍼지기 시작하고, 위대한 어미 염소의 축일이던 **12월 25일**이 아기 예수의 탄신일이 되면서 많은 것이 달라졌습니다. 기독교인들은 이도교의 신앙을 기독교에 예속시키기 위해 이 염소 신에게 크람푸스라는 이름을 붙였고, 그가 산타클로스의 동료라는 새로운 이야기를 만들어냈습니다. 이 전설이 좀 더 야만적인 원본 설화를 대체하여 유럽 전역에 퍼지게

되었습니다. 그게 우리가 모르고 있던 크람푸스의 기원이랍니다. 하지만 신의 이름이 크람푸스로 변했다 한들, 그 신도들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끔찍하고 모독적인 풍습 역시도 간신히 명맥을 이어왔습니다. 특히 이 크람푸스의 교단의 풍습 중에 독특한 점이 있었다면, 개중에는 한때 인간이지만, 타의에 의해 괴물로 변한 '선택받은 이'들이 존재했다는 겁니다. '크람푸스의 혈족'이라 불리는 이 자들은 정제되지 않은 슈브 니구라스의 젖을 마시고, 술식에 걸려 인간과 염소를 기괴하게 섞은 듯한 모습으로 변이된 인간들입니다. 이들은 크람푸스의 대리인처럼 여겨져 교단 내에서 아주 특별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습디만, 크람푸스의 혈족을 교단 내에서 선발하는 경우는 없었습니다. 대신 그들은 좀 더 특이한 방법을 택했는데. 사제들은 아무것도 모르는 민간인들 사이에 섞여 들어가, 적당한 자질을 가진 사람들을 골라내곤 했습니다. 그 '자질'의 기준은 하나입니다. '나쁜 짓'을 저질렀는가?

크람푸스의 사제들은 과거에 저지른 죄에 대해 특별히 죄의식을 갖고 있는 인간들을 골라, 그들을 납치해 크람푸스의 혈족으로 변형시키곤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혈족 후보자의 내면에 있는 악을 가능한 끌어내기 위해, 그가 바쳐진 인간 제물을 살해하도록 종용한 것은 물론입니다. 초기에는 단순히 산타클로스의 동료 역만을 맡았던 크람푸스가 나쁜 아이들을 데려가 벌한다는 이야기는 여기서 비롯한 것입니다. 아, 역사 이야기는 이쯤 할까요?

하여간 여기 있는 우리의 **KPC**는 크람푸스의 사제입니다. 그는 몇십년 전 호레이스 마몬트 대학교의 학생이었고, **1919년 12월 24일**, 그 학교의 학생들인 니콜 맥클라나한과 허버트 리드를 '크람푸스의 혈족'으로 만든 전적이 있습니다. **KPC**는 그 뒤로 학교에서부터 자취를 감추었으나, 그 뒤로도 크람푸스의 혈족들을 만드는 것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몇십년만에 다시 이곳으로 돌아왔습니다. 모독적인 주술을 사용해 **20대**의 어린 모습을 되찾고, 정체를 감춘 채 학생들 사이에 숨어든 그는 이번에도 학교 안에서 크람푸스의 혈족이 되기 적당한 후보자들을 찾아냅니다. 바로 탐사자들입니다. 탐사자들이 갖고있는 양심의 가책은 **KPC**가 생각하기에 딱 알맞은 것이었습니다. 그는 탐사자들을 학교에 남게 해 크리스마스 파티를 열었고 미리 준비해 둔 탐사자들의 신체 일부와 슈브 니구라스의 젖을 써 술식에 걸린 에그노그를 만들어 대접했습니다. 탐사자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크리스마스 파티를 즐기며 이 술식이 걸린 에그노그를 마셨습니다. 덕분에 그들은 크람푸스의 혈족으로 변이될 위기에 처했죠. 그리고 후에 일어날 일은 모르고 기쁜 시간을 보내던 중. 돌연 불이 꺼지고 '가짜 산타클로스'의 모습을 한 괴한이 방 안에 들어닥칩니다. 그는 탐사자들의 변이를 위해 바쳐진 제물이자, **KPC**가 탐사자들에게서 '짐승에 가까운' 본능을 일으키기 위해 들여보낸 말단 사교도인 '가이 터커'(Guy Tucker)입니다. 터커를 굳이

산타클로스 모습으로 분장시킨 것은 순전히 자신의 신 "크람푸스"로부터 크리스마스를 뺏아간 성 니콜라스에 대한 제의적 복수 비슷한 이유에서입니다. 하여간 탐사자들은 갑작스레 창문으로 쳐들어온 터커에 의해 위협을 느끼고, 이 불안과 공포는 곧 슈브 니구라스의 젖이 불러온 야만적인 살해 총동으로 번집니다. 터커를 꼼짝하게 살해한 후에 탐사자들은 가까스로 이성을 되찾지만, 저도 모르는 새 살인을 저질렀다는 사실에 놀랄 때가 아닙니다. 점점 기묘한 괴물의 모습으로 뒤틀려가는 몸과, 드러나는 친구 **KPC**의 수상한 정체는 그들을 혼란스럽게 만들 것입니다. 크리스마스의 이브가 악몽처럼 변해버린 가운데, 탐사자들은 자신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밝혀내고 **KPC**와 교단의 손아귀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불온한 조건 하나가 더 덧붙습니다- 탐사자들이 걸린 불온한 술식을 풀려면, 술자의 피나 살을 섭취해야 합니다. 사람으로 돌아오려면 그래도 한때 친구였던 **KPC**의 피나 살이 필요하다는 소리입니다. 그들은 과연 이 저주받은 12월 24일을 넘기고, 12월 25일을 인간의 모습으로 맞을 수 있을까요?

호레이스 마몬트 대학교

Horace Marmont University

미시간 주, 수세인트-마리에 위치한 사립 대학교입니다.

1838년 개교하여 그 역사가 상당히 오래된 학교입니다. 학생들에게는 '마몬트'에서 비롯한 '맘모스'라는 다소 우스꽝스러운 별명으로 불리고 있다만 나름대로 명성과 전통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학교 뒤로는 숲과 호수가 있으며, 도보로는 20분, 차로는 5분 거리에 작은 마을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겨울이 되면 늘 눈이 내려 화이트 크리스마스를 즐기기 최적의 조건을 갖고 있으나, 몇십년전 크리스마스 시즌에 일어난 '불미스러운' 사건으로 인해 크리스마스 시즌이 되면 학생들을 한명도 남기지 않고 귀가시키는 것이 원칙이 되었습니다. 이 '소문'에 대해서는 여러 추측이 떠돌아, 살인과 실종 사건이었다는 소문이 가장 유력합니다.

세월이 많이 지난 탓에 이 '귀가 필수' 조항은 어느덧 '귀가 권유' 수준으로 느슨해졌습디만, 거의 모든 학생들은 집으로 돌아가곤 합니다. 그러나 탐사자들만큼은 기숙사에 남아 크리스마스 시즌을 만끽하고자 합니다.

니콜라스 하우스

Horace Marmont University Dormitory: Nicholas House

호레이스 마몬트 대학교의 기숙사. 이 시나리오의 배경이 되는 '니콜라스 하우스'는 호레이스 마몬트 대학의 건물들 중 가장 숲과 가까이 위치해 있습니다.

기숙사는 아파트식으로, 그 비용이 비싼만큼 설비가 잘 갖춰진 편입니다. 2인 1실에 거실, 침실, 그리고 작은 부엌이 딸려 있습니다.

기숙사의 한 층 자체는 남녀 학생들이 같이 쓰지만, 기본적으로 방은 동성끼리 쓰는 것이 원칙입니다.

파티가 열리는 KPC의 방은 2층에 자리해 있습니다. 2층 동쪽 복도 끝에는 폐쇄된 방이 하나 있습니다. 학생들은 웬만해서는 그 근처로 잘 가지 않습니다.

니콜라스 하우스의 담당 수위는 나이가 지긋한 노인으로, 상당히 태만합니다. 그는 크리스마스 시즌 내내 니콜라스 하우스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있는 숙소에서 술을 마시고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그가 실제 플레이에 등장할 확률은 극히 적습니다.)

* 원활한 플레이를 위해 배경에 적힌 사항 정도는 탐사자들에게 알려주셔도 좋습니다. 또한 '호레이스 마몬트 대학'은 가상의 대학교입니다. 원하실 경우 얼마든지 학교의 이름이나 위치 등의 세부 설정을 바꿀 수 있습니다.

탐사자들

호레이스 마몬트 대학의 학생들.

탐사자들은 크리스마스 방학을 맞아 집으로 가는 대신, 기숙사에 남아 텅 빈 학교에서 크리스마스를 만끽하는 것을 택했습니다. 그리고 크리스마스 이브 밤, 탐사자들은 KPC의 방에 모여 파티를 엽니다. 이것이 이 시나리오의 발단입니다.

Naughty, Naughty Kids

탐사자들은 모두 '큰 양심의 가책을 갖고 있는' 과거의 일이 하나씩 있습니다.

사건 자체의 경중은 중요치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사실이 탐사자의 마음에 사라지지 않는 가시로 걸려 있다는 것입니다. 모두가 살인을 저질렀을 필요는

없습니다. 극단적으로 말해서, 탐사자가 어린 시절 자전거를 훔쳤더라도 그 일이 어른이 된 지금까지도 마음을 심히 괴롭게 한다면 그것으로도 충분합니다.

탐사자들은 이 이야기를 비밀로 간직하고 있으나, KPC, 혹은 KPC를 포함한 다른 탐사자들에게 털어놓은 적이 있습니다.

KPC

크람푸스의 사교도이자 교단의 고위 사제입니다. 나이는 키퍼가 정하기

나름이지만...어쨌거나 20대는 아닙니다. 그보다 훨씬 나이가 들었죠.

KPC는 크람푸스의 고위 사제로서 '크람푸스의 혈족' 후보자를 고를 수 있는 특권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그는 과거, 1919년 호레이스 마몬트 대학교에 다니던 두 학생, 허버트와 니콜을 선택해 변이시켰죠. 그 뒤로도 그는 학교를 떠나 사교도다운 짓들에 전념했으나(물론 1930년대에 다른 곳에서 혈족 후보자 하나를 더 구하긴 했습니다) 현재, 다시 자신의 모습을 20대로 바꾸고 호레이스 마몬트 대학교로 돌아왔습니다. 그는 많은 학생들을 지켜보았고, 그 결과 탐사자들이 적합한 후보라 판단했습니다. 아마 탐사자들이 절친한 친구라 생각해서 털어놓은 그들의 '비밀'이 큰 역할을 했을 것입니다. 하여 KPC는 몇십년 전처럼 크리스마스 파티를 준비해, 미리 준비한 술식이 걸린, 슈브 니구라스의 찢이 들어간 에그노그를 먹입니다.

그러나 KPC는 사교도의 뒤틀린 마음으로 하여금 (자신에게만) 재미있는 게임 하나를 꾀합니다. 옛 정이 있는만큼, 이 '선택받은' 친구들에게 그들 앞에 닥칠 일에 대해, 그리고 그들 이전에 자신이 제물로 점찍었던 이들에게 일어난 일에 대해 어느 정도 힌트를 남기는 것입니다. 하여 KPC는 자신의 음모를 증명하는 물건들을 부러 꾀꾀 숨기는 대신, 탐사자들이 충분히 그들을 발견할 수 있도록 해 놓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탐사자들이 결국 모든 진실을 알아내더라도, 자신과 합류할 것이라 믿습니다. 어쨌거나 신의 대리인으로 선택받는건 가장 근사한 크리스마스 선물이잖아요?

기타: KPC와 동성인 탐사자는 KPC의 룸메이트로 설정해주세요.

KPC는 주문 1~2개 정도는 알고 있을 것입니다. 주문의 종류는 키퍼가 플레이에 적절히 사용될 것을 선택해주세요.

KPC를 흑막으로 만들고 싶지 않다! 하는 분들은 KPC를 탐사자들과 같은 포지션(예비 사교도)에 놓고, '흑막' 포지션에는 미리 만들어진 NPC 데이터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NPC 데이터는 아래에 제공합니다.

NPC

캐롤라인 "캐롤" 살레르노

Caroline "Carol" Salerno

23세, 여성

이탈리아계 미국인. 심리학 전공.

유행하는 모양으로 다듬은 까만 머리, 깨끗한 피부. 따뜻하고 활기넘치는 올리브색

눈동자가 특징입니다. 캐롤은 유행에 민감해 언제나 세련된 차림새를 유지합니다.

타인의 말을 아주 주의깊게 경청하는 습관이 있고, 사려깊은 성품을 가졌기에. 캐롤의

주변에는 언제나 친구가 넘칩니다. 그러나 그녀가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은

탐사자들입니다.

캐롤이 가장 좋아하는 명절은 크리스마스, 가장 좋아하는 음료는 에그노그입니다.

롤플레이 가이드: 캐롤은 사교도로서의 본색을 드러내기 전까지는 '상냥하고 평범한 친구'

역할을 충실히 수행합니다. 일반인이 당연히 놀라야 할 부분에는 놀란 듯한 연기를 하고,

탐사자들이 공포와 충격에 빠진다면 그들을 위로해주고자 합니다.

STR 55 SIZ 40 CON 75 DEX 70 APP 60 INT 85 POW 90 EDU 70

크툴루 신화 30% 근접전 50% 권총 65% 심리학 60% 말재주 75% 설득 50% 매혹 65%

주문: 키퍼가 정한 주문 1~2개를 갖고 있습니다.

1919년 12월 24일, 호레이스 마몬트 대학교 실종사건

허버트 리드

Herbert Reed

사건 당시 23세, 남성

호레이스 마몬트 대학교에 재학 중이던 학생. 1차 대전에 참전하였고, 참전 후 PTSD를 심하게 겪었습니다. 전쟁 당시 생미엘 전투에서 어린 독일군을 잔인하게 사살하였고 이로 인한 자책감을 늘 품고 있었습니다.

친한 친구였던 **KPC**에게 이 사실을 털어놓은 뒤 많은 위로를 받았으며, 그 뒤 애인 니콜이 위작 사실이 들켜 괴로움을 겪자 **KPC**와 이야기를 나눠볼 것을 권유합니다.

그러나 허버트는 이것이 그들이 크람푸스의 혈족 후보자로 '발탁'되는데 일조하리라는 사실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1919년 크리스마스 이브, 허버트와 니콜은 **KPC**가 준비한 크리스마스 파티를 술식이 걸린, 슈브 니구라스의 젓이 들어간 에그노그를 마시고 크람푸스의 혈족으로 변해버립니다. 파티 중간에 자리를 비웠던 친구 로니가 돌아오나, 이미 그때는 변이가 상당히 진행되어 있던 상태였던 허버트와 니콜은 로니를 알아보지 못하고 죽여버립니다. 크람푸스의 혈족으로 변해버린 그와 니콜은 **KPC**와 함께 자취를 감춥니다.

니콜 맥클라나한

Nicole Mcclanahan

사건 당시 **24**세, 여성

호레이스 마몬트 대학교에 재학 중이던 학생으로, 허버트 리드의 애인이었습니다. 십대 후반 시절부터 화가로 유명세를 떨치기 시작했으나, 사실 그 그림들은 자신의 마을 친구였던 엘라의 작품을 베낀 위작이었습니다. 결국 **1919년** 겨울 이 사실이 들뚝나며 신문에 실리게 되고, 니콜은 크게 상심합니다. 이때 니콜은 허버트의 권유에 따라 **KPC**에게 자신의 잘못과 그에 따르는 자책감에 대해 솔직한 이야기를 털어놓고. **KPC**는 이를 바탕으로 니콜과 허버트 커플을 제물로 점찍게 됩니다.

로니 클라크

Lonnie Clark

사건 당시 **22**세, 남성

탐사자들에게 가이 터커가 있다면, 니콜과 허버트에게는 로니 클라크가 있었습니다. 그는 니콜과 허버트의 '변이'에 필요한 희생양으로 점찍어져 있었습니다.

로니 클라크는 허버트의 룸메이트이자, 니콜과 허버트 커플의 절친한 친구였습니다. 그는 처음부터 **KPC**를 마음에 들어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사건 당일 파티 도중 KPC가 만든 음식을 입에 대지도 않는 다소 노골적인 행각으로 인해 KPC와 말다툼을 벌였고, (물론 부러 싸움을 일으키긴 했으나, 이는 KPC에게는 잘 된 일이었습니다. 제물인 로니가 슈브 니구라스의 젖을 먹어선 안되니까요.) 사소한 티격거림은 다소 격해져 두 사람은 기숙사 밖의 복도에서 말싸움을 벌이게 되었습니다. KPC가 이미 자신을 희생 제물로 점찍어 놓은줄 몰랐던 로니는 '난 나갈테니, 코트나 챙겨 오겠다' 라고 말하고는 기숙사 안으로 들어가지만... 그는 이미 변이가 진행되고, 폭력성이 극에 달했던 니콜과 허버트에게 끔찍하게 살해당하고 맙니다.

허버트와 니콜, 혹은 '크람푸스의 혈족' 들.

인간이 슈브 니구라스의 젖을 먹고 변해버린 반인반수, '크람푸스의 혈족'으로 완전히 변이한 허버트와 니콜입니다. 그들은 현재 흔히 '크람푸스'라고 묘사되는 흉측한 염소 혹은 양 반인반수의 형태를 띄고 있습니다. 또한 인간으로서의 기억도 거의 남아있지 않으며, 오로지 불온한 본능만이 존재할 뿐입니다.

STR 80 CON 100 SIZ 90 DEX 80 INT 10 POW 40

근접전 공격 45% 1d4+db

뿔로 들이받기 30% 1d6+db

회피 30%

시나리오 본문

*KPC의 대사, 묘사, 행동지문은 예시일 뿐이므로 개변을 적극 권장해드립니다.

INTRO: Santa won't be coming to town

산타 클로스가 죽어 있습니다.

네, 정말로요. 산타 클로스가, 우리 눈 앞에, 죽어있다고요.

물 밖의 랑스터처럼 바닥에 널브러진 저 붉은 남자의 복슬복슬한 흰 수영은 피에 젖어 있고, 삼각 모자 아래의 머리는 반쯤 으깨져 있습니다. 그는 더 이상 호, 호, 호! 하고 유쾌하게 웃지도, 아이들에게 선물을 나눠주지는 못할 겁니다. 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거죠? 아까까지만 해도 우리는, 분명...

It's that wonderful time of the year

... 가장 근사한 크리스마스 파티를 즐기고 있지 않았던가요.

김이 하얗게 서린 창 바깥에는 검푸른 밤하늘을 배경으로 눈발이 천진하게 휘날립니다. 오늘 아침부터 내린 흰 눈은 이 일대를 포근하게 감싸안고 있습니다. 눈발이 점점 거세진 탓인지, 라디오는 점차 치직거리며 소음을 뱉어내고, 결국 우리들 중 누군가 라디오를 끕니다. 하지만 이는 그다지 큰 문제는 못 됩니다. 그야, 전축에서는 신나는 캐롤이 흘러나오고 있거든요. 훈기 어린 방의 공기 속에서 전축 속 크루너와 코러스들은 달콤하기 그지없는 목소리로 '메리 크리스마스'를 외치고, 벽에 붙은 크리스마스 장식들은 불빛 아래 반짝입니다.

즐거운 분위기의 **RP**를 진행할 수 있는 구간입니다.

탐사자들은 마음껏 먹고, 마시고, 떠듭니다. 침실에 둔 간이 테이블 위에는 **KPC**가 차린 음식이 가득합니다. 하지만 단연 인기가 좋은건, 역시 **KPC**가 직접 만든 에그노그입니다. **KPC**의 가족에게서 전해 내려오는 레시피로 만들었다는 이 크리스마스 음료는 거의...그래요, '기념비적으로' 맛있습니다. 에그 커스터드는 적당히 달큰하고 고소하며. 중간중간에 시나몬과 넛메그, 위스키의 향취가 풍미를 더합니다. 허끝에 걸쭉하고 시원한 액체가 감기는 느낌은 부드럽기 그지없습니다.

덕분에 에그노그 병은 금방 비게 됩니다. **KPC**는 에그노그의 인기에 대해서 코멘트를 남긴 뒤(대사는 **KPC**의 성격에 따라 정해주세요), 에그노그가 더 남아있는지 보겠다며 부엌으로 나섭니다. 문이 닫히고, 파티는 이어집니다. 명랑하기 그지 없는 축일 전야입니다.

탐사자들은 **KPC**가 나간 뒤, **RP** 중 <듣기> 강제 판정을 진행합니다.

판정에 성공할 경우, 창틀에 무언가 탁, 탁 부딪히는 소리를 듣습니다.

실패할 경우, 바깥에서 눈보라가 휘몰아치는 소리 밖에 듣지 못합니다.

소리를 들은 탐사자들은 이를 무시할 수도 있고, 확인해보고자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창문 쪽을 향해 고개를 돌린 탐사자는...창문 밖에 거대한 검은 그림자가 어른거리는 것을 발견합니다.

*만약 파티 도중 자주 창문 밖을 내다보는 탐사자가 있다면, 판정 없이 검은 그림자를 발견하게 해도 좋습니다.

It came upon a midnight clear

분명히 그것은 사람의 그림자입니다. 마치 불룩하고 커다란 무언가를 지고 있기라도 한 것처럼, 그의 그림자 한 구석은 둥글게 툭 튀어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탐사자들이 무어라 판단을 내릴 수 있기도 전에. 다음 순간, 창문이 열어젖혀집니다. 매서운 눈보라가 순식간에 방안으로 까지 휘몰아닥칩니다. 다음 순간, 순식간에 방이 어두워집니다. 울부짖는 바람의 소리, 창틀 앞에 선, 눈 앞에 어른거리는 검은 거대한 실루엣... 탐사자는 일순 당혹과 공포의 감정에 휩싸입니다. 어둠 속에서 그 '누군가'가 움직입니다. 창틀을 넘어 마루에 발을 디딤니다.

그러나 무언가...무언가 이상합니다. 대체 무슨 일이지. 저건 누구지. 그런 의문이 들 찰나, 머리가 어지럽고, 속이 뒤틀리듯 메스꺼워집니다. 바람 소리는 갑자기 귓가에서 귀를 찢는 울음소리처럼 변합니다. 탐사자의 눈 앞이 붉게 물듭니다. 비정상적인 공포는 머리를 온통 휘저어놓고, 뒤틀린 직감은 단 한가지만을 외치고 있습니다. 저 사람은 반드시 나를 해치고 말 것입니다. 그 전에, 내가...

*탐사자들은 주변의 물건, 혹은 맨손으로 터커를 잔혹하게 구타해 살해합니다. 플레이어 성향에 따라 살해 장면을 롤플레이로(판정 없이) 연출할 수도 있지만, 탐사자가 이성 수치를 잃는 부분에서 장면을 그대로 암전시키고 다음 장면으로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Santa won't be coming to town-reprise

그리고 다시, 의식은 현재로 돌아옵니다.

분명 그랬죠. 파티 도중에 창문이 열리고, 낯선 남자가 들어왔고, 우리는... 그 뒤로는 피비린내나는 기억들이 이어집니다. 정말로 그렇게나 끔찍한 짓을 저지른게, 나 자신이 맞을까요? 하지만 이에 답이라도 해주듯 손은 피로 질척하게 젖어 있고 마루 위에는 시체가 나뒹굴고 있습니다. 몇몇 탐사자들은 여족 살인을 저지른때 썼던 도구를 들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 어떤 면을 보더라도, 정황상...이 '산타'는 자신들이 죽인 것이 확실해보입니다. 술김이었을까요? 당황해서? 아니면...아까의 그 이상한 감정을 무어라 설명할 수 있을까요. 어쨌거나 자신의 손으로 살인을 저질렀다는 사실은, 보통 사람이라면 감당하기 힘들 정도로 충격적인 것입니다. **SAN 1/1d4**

여전히 축음기에서는 캐롤이 흘러나오고 있지만, 그 선율은 더는 명랑하게 들리지 않습니다. 그보다는 엉망이 된 친구들이 몰아쉬는 가쁜 숨소리가 더 크게 귓가에 울려퍼집니다.

이때 탐사자들을 언제 돌아왔는지, **KPC**가 그들을 당혹스러운 얼굴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KPC**의 반응은 성격에 맞게 수정해주세요.) **KPC**는 '산타'의 시체와...당연히 범인일 수 밖에 없어보이는 탐사자들을 번갈아봅니다. 한참 후, 결단을 내린듯. 그가 조용하고도 단호한 목소리로 입을 엽니다.

"...그냥, 물어버리자."

탐사자들은 시체의 처분에 대해서 의논하는 **RP**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만약 유기를 결정하고 적당한 장소를 물색할 경우, 지능 판정을 통해 기숙사 뒤의 숲을 떠올리게 할 수 있습니다. 그정도라면 아무에게도 들키지 않고 넘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마을은 조용하고, 숲은 방문객이 없어 인적이 아주 드문 편이니깐요. 만약 탐사자들이 모두 판정에 실패해 이를 쉽게 떠올리지 못할 경우, **KPC**를 통해 이야기해줄 수도 있습니다.

물론 탐사자들이 경찰에 신고하자는 의견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장애물들이 존재합니다.

- 현재 눈보라가 너무 심하게 몰아쳐, 차를 타고 나갔다면 사고를 당하기 쉽상입니다.

- 눈보라로 인해 전화 연결이 불안정합니다. 탐사자들이 전화를 걸려고 하면, 전화는 먹통이 되어 있습니다.
- 게다가 살인범은 '누가 봐도' 탐사자들입니다. 흥분한 대학생들이 (비록 그가 들어온 의도가 불투명하긴 하지만) 산타클로스 분장했던 불운한 남자를 죽인 사건은 크리스마스 엽기 살인으로 대서특필되기 딱 좋습니다.

만약 탐사자들이 유기를 결정한다면, **KPC**는 쓸만한 삼(숲에서 시체를 태우고자 한다면 기름)을 찾아오겠다며 방을 나섭니다. 탐사자들에게 범행 은폐에 쓸만한 것들을 찾아보라고 조언해주는 것은 물론입니다.

물론 **RP**를 더 즐기고 싶다면 **KPC**가 퇴장하는 시점을 변경해도 좋습니다.

The man with the bag

시체를 유기하기로 결정한 후, 탐사자들은 '산타'의 시체를 조사할 수 있습니다.

<시체>

불그스름한 살 오른 얼굴에, 복슬한 흰 수염. 옆의 크리스마스 트리 장식에 붙어있는 작은 산타 오브제와 똑 닮은 모습입니다. 그러나 얼굴을 자세히 살피거나 <관찰> 판정을 할 경우, 탐사자는 남자의 수염이 가짜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수염을 떼어내고 모자를 벗기면 비로소 '산타', 아니 남자의 맨얼굴이 드러납니다.

아까까지는 크리스마스 카드에 그려져 있을법한 산타 같다고 생각했는데, 이렇게보니...어딘가 사나워보이기도 하는군요. 수염에 가려져 있던 입가에는 길게 흉터가 남아 있기까지 합니다.

헌데 저 얼굴은, 어딘가 낯익습니다. 신문을 자주 읽는 탐사자의 경우, <지능> 판정을 통해 남자의 정체를 알아낼 수 있습니다.

일주일 전 신문에 남자의 얼굴이 실린 적이 있습니다. 그의 이름은 가이 터커, 5년전 크리스마스에 살인을 저지르고 복역하던 중 탈옥했다지요. 그 이름이 유독 기억에 남는

이유는, 탈옥 소식을 알리는 기사에 함께 언급된 그의 범죄행각이 어딘가 기분나쁘게
기묘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크리스마스 당일, 파티 중이던 3명의 피해자들을 살해한 뒤,
그들의 시체를 마치 제물이라도 되는 것처럼 쌓아둔 채 경찰에게 검거되었다고 합니다.

신원을 알기 위해 몸수색을 하다 보면 시체의 겉옷을 벗길 경우, 문신으로 빼곡하게 뒤덮인
맨몸이 드러납니다. 남자의 등에는 염소의 뿔이 달린, 흉측한 악마의 머리가 크게 새겨져
있습니다. 그 모습이 어찌나 생생한지 문신을 본 것 만으로도 꼭 그 악마와 눈을 마주친 듯한
기분이 들어 섬찟해집니다. 또한 그의 팔에는 블랙레터체로 낯선 말들이 적혀있는데.

<독일어> 기능이 있는 탐사자라면 이것이 중부 유럽에서 사용되었던 고대 고지 독일어(**Old high german**)임을 알 수 있습니다. 해당 판정에서 어려운 성공 이상의 결과를 얻을 경우
해석이 가능합니다. '숲 속 검은 염소의 종'이라 적혀 있습니다.

문신 외에도 몸에는 자해흔이 가득합니다. 다만 그 흉터들은 마구잡이로 그어졌다기보다는
문양의 형태를 그리고 있습니다. (슈브 니구라스를 상징하는 문양입니다)

또한 시체를 뒤지는 탐사자는 시체의 품에 있던 크리스마스 카드를 획득할 수 있습니다.
탐사자가 산타의 겉옷을 벗길 경우, 이 카드는 그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바닥으로
떨어집니다.

<카드>

카드는 크리스마스 시즌에 어느 가게에서나 팔 법한 종이 카드입니다. 그러나 카드
겉면에는 흔히 볼 산타클로스 대신, 뒤틀린 뿔과 샛노란 눈동자, 그리고 길게 늘어진 뽀족한
혀를 가진, 꼭 염소를 연상시키는 모습의 흉측한 악마가 그려져 있습니다. 악마는 한 손에는
나뭇단을 들고 있으며, 다른 손에는 겁에 질려 울음을 터뜨리는 아이의 목덜미를 쥐고
있습니다.

카드를 열어본다면, 편지지에는 다음의 메세지가 화려한 흘림체로 적혀 있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오늘 밤 크람푸스께서 다녀가신다.]

<오컬트> 판정을 시도할 경우 크람푸스에 대한 정보를 떠올릴 수 있습니다. 오컬트 판정은
역사 판정으로도 대체 가능합니다.

‘크람푸스’는 유럽 쪽에 알려져있던 성 니콜라스, 그러니까 산타클로스의 동료이자 일종의 안티테제와 같은 민간 신앙 속 존재입니다. 염소의 형태를 한 악마의 모습을 하고 있었고, 산타클로스의 착한 아이에게 선물을 준다면 크람푸스는 나쁜 아이들을 자루에 넣어 납치한다고 했죠.

<보따리>

이제는 피에 젖어 있는 산타의 보따리는 불룩하게 차 있습니다. 보따리를 뒤지면 가장 먼저 보이는 것은 선물 꾸러미들입니다.

<선물>

선물은 탐사자의 수만큼 있습니다. 초록색, 붉은색, 금색의 포장지와 리본으로 화려하게 장식된 선물에는 탐사자들의 이름이 적힌 네임택이 각각 달려있습니다. 탐사자들이 선물을 풀어보면, 안에서 '자신들이 저지른 잘못, 혹은 갖고 있는 죄책감'을 연상시키는 물건을 발견하게 됩니다.(이 물건들은 키퍼가 플레이 전 미리 정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카드를 동봉할 경우, 카드의 내용 또한 함께 정해두는 편이 좋습니다.)

탐사자들의 불안을 가중시키고 싶다면 선물과 함께 각자에게 보내는 카드를 동봉해도 좋습니다. 카드는 탐사자들이 과거에 저지른 잘못을 암시하는 내용을 담고 있을 확률이 큼니다. 산타클로스에게 가장 끔찍한 비밀과 치부를 들키다니, 정말이지 끔찍하기 짝이 없는, 뒤틀린 농담 같습니다. **SAN 0/1**

보따리에는 선물 외에도 다른 것들이 들어 있습니다.

<크리스마스 동요집>

아이들이 쓸 법한 작은 양장 동요집입니다. 붉은 가죽 표지 위에는 금박을 씌운 글자로 “신실한 아이를 위한 크리스마스 동요집”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동요집을 펼치면 삽화와 함께 어우러진 악보들이 나타납니다.

악보 아래에는 가사가 붙어 있습니다. 음악 관련 기능이 있거나 악보를 읽을 수 있는 탐사자는 이 악보 속의 선율이 탐사자들에게 익숙한 크리스마스 캐롤들의 멜로디와 유사함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사는 난생 처음 보는 것들입니다.

“크람푸스, 크람푸스, 나쁜 아이를 데려가시네!

아무리 거짓말하고 숨어도 어쩔 수 없어. 크람푸스는 모든걸 다 보고 계셔!

크람푸스, 크람푸스, 나쁜 아이를 데려가시네!

크리스마스는 그의 날, 절대 벗어날 수 없어. 췌, 여기 그가 온다!”

“하나, 둘! 우유를 주세요.

셋, 넷! 노란 눈도 주세요.

다섯, 여섯! 큰 뿔을 주세요!

일곱, 여덟, 발굽을 달고 춤춰라.

아홉, 열, 주인에게 돌아가거라!”

일러스트 또한 불쾌하도록 기이합니다. 잔혹하고 야만적인 모습은 동요라는 성격과 도통 어울리지 않습니다.

눈 덮인 어두운 숲 속에서 크게 타오르는 모닥불을 가운데 두고, 춤추는 사람들이 그려져 있습니다. 불 한가운데에는 비명을 지르는듯 입을 한껏 벌린 세 사람이 묶여 있습니다. 자세히 보면 묶인 이들의 팔에는 칼로 기묘한 문양이 새겨져 있습니다. 만약 가이 터커의 시체에 난 칼자국을 본 탐사자라면, 그 형태가 가이 터커의 몸에 새겨져 있던 것과 동일함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장에는 우유를 마시는 아이들의 그림이 그려져 있습니다. 아이들의 눈동자는 노랗게 변해있는데다, 초점이 나가 있어 섬뜩하기 그지없습니다. 게다가 몇몇 아이들의 다리에는 인간의 다리와 발 대신, 염소 같은 짐승의 검은 털 난 다리와 발굽이 대신 그려진 채입니다.

<종이 조각>

동요집을 넘기다보면 오래된 종이 찢가리 하나가 툭 떨어집니다.

아주 오래된 종이-아마도 신문에서 오려낸 듯한 기사의 일부입니다. 1919년 12월 26일자 신문입니다.

“크리스마스 이브의 비극: 2명 실종, 1명 사망!”이라는 제목 아래에 소제목(205호의 미스터리- 우발적 치정살인인가, 계획범죄인가?), 그리고 사진이 첨부되어 있습니다. 사진 속의 광경은 처참합니다. 흑백이라서 망정이지, 아니었다면 역겨울만큼 처참한 꼴이었을 겁니다. 엉망이 된 방의 풍경 중에선 피칠갑이 된 벽이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옵니다. 의자와 테이블은 뒤집히고, 벽에 걸려있던 그림은 캔버스가 찢겨 있습니다. 여기서 일어난 일은 틀림없이 입에 담기 힘들 정도로 끔찍했을 것입니다. 만약 탐사자들이 사진에 <관찰> 판정을 시도하거나 배경을 유심히 볼 경우, 방의 인테리어가 다를 뿐. 방의 구조가 지금 탐사자들이 쓰는 기숙사와 상당히 유사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게다가 벽에 걸린, 피에 젖은 ‘HMU’ 깃발-저건 호레이스 마몬트 대학교의 깃발이 틀림없습니다!

KP 메모

1919년 12월 24일 이곳에서 일어났던 일을 암시하는 힌트입니다. 탐사자들은 어쩌면 자신들이 겪은 일과 유사한 일이 이 학교에 일어났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사진>

보따리 밑바닥에는 탐사자들이 함께 찍은 사진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진에는 마치 어린아이가 낙서를 한 것처럼 마구잡이로 뿔과 털이 그려넣어져 있습니다. 게다가 환하게 미소짓는 입에는 뽀족한 이빨을. 마냥 즐거운 눈빛을 한 눈에는 염소의 눈처럼 각진 동공을 그려넣어 무척이나 기괴해 보입니다.

The First Omen

선물을 풀어보고 난 뒤, 탐사자들은 서로를 볼때 문득 위화감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원래 저 친구의 눈이 저렇게 노랬나요? 동공은 각이 졌고요? 이마 위에 양 쪽으로 튀어나온건 흑인가요? 아니면...뿔?

이 시점에서 키퍼는 탐사자들에게 일어나기 시작한 변이 증세를 묘사할 수 있습니다. 현재 탐사자들은 1단계에 속해 있습니다. 이때는 미약한 변이의 특징을 탐사자 한명이 1개씩 갖게 됩니다. 다음은 미약한 변이 증세의 예시입니다. 키퍼가 원한다면 얼마든지 변이의 증세를 창조해 적용할 수 있습니다.

- 눈동자가 염소의 것처럼 노랗게 변합니다.
- 동공이 각지기 시작합니다.
- 이마 양 옆에 혹처럼 작은 뿔이 튀어나옵니다.
- 이빨이 조금씩 뾰족해집니다
- 귀 끝이 뾰족해집니다
- 손톱이 갑자기 날카롭게 자랍니다

자신의 몸에 이상증세가 나타났다는걸 깨달은 탐사자는 이성치 판정을 진행합니다. [SAN 1/1d2]

만약 탐사자가 보따리 안에 있던 사진을 확인했을 경우, 네모난 동공이나 뿔 같은 것들이 지금 탐사자들에게서 보이기 시작한 징조와 겹쳐보입니다. 그 사진은 대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며, 탐사자들에게서 어째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일까요.

Santa's little helpers

만약 조사 도중 창문 밖을 보는 탐사자가 있을 경우, 그는 창 밖에 보이는 어둠에 쌓인 뒤편 숲의 나무들 사이에서 짐승처럼 보이는 검은 그림자들이 어슬렁거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관찰> 판정을 진행하도록 하세요. 관찰 판정에 성공할 경우, 털이 덩수룩하고 기괴하게 구부러진 거대한 뿔을 단 검은 짐승의 모습이 달빛 아래서 얼핏 보입니다. 이윽고 탐사자는 그것이 구부정한 자세로, 마치 사람처럼 두 발로 걷는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루돌프가 이족 보행을 한다는 소리는 못 들어 봤는데요! 그러나 그 '짐승'들은 이윽고 어둠 속으로 사라져버립니다.

실패할 경우, 어둠 속에서 잠깐 보이다 말았던 그것이 꼭 순록처럼 생겼다는 생각이 듭니다. 수북한 털, 커다란 뿔... 정말로, 산타가 타고 온 루돌프라도 되는 것일까요?

KP 메모

'크람푸스의 혈족'이 된 니콜과 허버트입니다.

I'm seeing things...

탐사자들이 크람푸스의 영향을 받고 있는 한, 그들의 옆에서는 계속 이상현상이 일어납니다. 플레이 도중 키퍼가 판단했을때 적절한 타이밍들에 이런 연출을 첨가해주세요. 다음은 탐사자들 주변에서 일어나는 이상현상들의 예시입니다. 실제 출력시에는 묘사를 덧붙이는걸 추천합니다!

-탐사자는 문득 거대한 뿔을 가진 그림자가 방의 구석에서 어른거리는 것을 봅니다. 다시 눈을 깜빡였을때 그 그림자는 사라져 있습니다. [SAN 0/1]

-탐사자는 1919년 12월 24일에 일어났던 일의 단편적인 환각을 봅니다. 인간이라고 말하기 어려운 모습-툭 튀어나온 뿔, 날카로운 이빨, 긴 털을 가진 두 형체가 비명을 지르는 한 남자를 배를 감아 파먹고 그의 사지를 거칠게 찢어발기고 있습니다. 사방에 피와 살점, 그리고 그 밖의 불쾌한 것들이 흩뿌려집니다. 환각 속에서, 탐사자의 뺨에도 무언가 축축하고 뜨거운 것이 튼니다. [SAN 1/1d2]

-탐사자는 자신이 끔찍한 괴물로 변해 다른 탐사자들을 도륙하는 환각을 봅니다. 여측 뜨거운 김을 뿜어내는 친구의 내장을 손에 쥐고 터뜨리는 감각이 환각인데도 무척 선연합니다.... [SAN 1/1d3]

-탐사자는 문득 참을 수 없이 야성적인 충동을 느낍니다. 정신력 판정에 실패하면 탐사자는 순간적으로 폭력적인 행동이나 언행을 해버리는 RP를 진행합니다.

-한겨울인데, 지독한 짐승의 누린내가 코끝을 찌릅니다. 사향, 땀내, 짐승의 배설물... 악취에 머리가 어지럽고 속이 메스꺼워집니다.

-탐사자는 짐승의 발굽이 따각거리는 소리를 천장이나 자신의 옆에 자리한 벽에서 듣습니다. 소리는 점점 가까워지다, 멀어지기를 반복합니다. [SAN 0/1]

-축음기에서 흘러나오던 캐롤은 거슬리는 킁킁 소리를 내더니 잦아들어 버리고. 대신, 마치 짐승이 으르렁거리는듯한 낮고, 음울한 찬트가 흘러나옵니다. 장송곡이나 미사의 합창곡 같기도 하지만 그보다 더 원시적이고 불협화음적인 음율은 무척이나 기이합니다. [SAN 0/1]

-근처에 교회라곤 없고, 종이 칠리도 없는데. 탐사자는 멀리서 종이 울리는 소리를 듣습니다. 어쩐지 저것이 죽은 자를 위해 울리는 종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문득 고개를 돌리다 말고, 탐사자는 문틈 너머 어둠 속에서 샛노란 눈동자의, 일그러진 얼굴의 악마가 자신을 보고 있습니다. 탐사자는 곧 그 악마가 얼굴을 흉측하게 실그리고 히죽대는 자신이라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SAN 1/1d2]

What's this?

이 페이지에서 탐사자들은 **KPC**의 방을 뒤지다, 석연찮은 증거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선은 방에서 시체를 숨기는데 쓸만한 물건을 찾아야 합니다. 탐사자들은 **KPC**의 방에서 조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시체를 감쌀만한게 있을까요? 혹시 시체를 태우는 편이 낫겠다고 판단했으나 탐사자들 중 흡연자가 없다면, 라이터를 함께 찾아봐도 좋습니다.

방에는 간이식탁과 침대, 침대 옆의 협탁, 그리고 책장이 있습니다.

방에 <관찰>기능을 사용하거나 침대 아래를 살펴본다는 선언을 할 경우, 침대 아래에서 올해 대학 미식축구 대항전에서 썼던 커다란 **HMU** 깃발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다들 경기의 열기가 끝난 뒤에 갖고 있던 깃발을 아무렇게나 쳐박아뒀는데, **KPC**도 마찬가지로였던 모양입니다. 학교의 이름에 먹칠...아니 피칠을 하는 노릇이라 찝찝하긴 하지만, 깃발은 시체를 감싸기에 충분할듯 합니다. 그러나 침대 아래 있는 것은 깃발이 전부 아닙니다. 작은 상자 하나가 더 보입니다.

<'크리스마스' 상자>

KPC의 침대 밑을 본다면, 작은 상자 하나가 나옵니다. 나무로 되어있는데다, 먼지 쌓인 뚜껑에는 눈내린 숲의 겨울 풍경이 정교하게 칠해져 있습니다. 다만 물감이 군데군데 벗겨진 것으로 보아 제법 오래된 물건 같습니다. 상자는 작은 낫쇠 자물쇠로 잠겨 있지만 <열쇠공> 혹은 <근력> 판정으로 열 수 있습니다. 책상 서랍을 미리 뒤져본 탐사자가 있다면 그곳에서 발견한 열쇠로 열 수 있습니다.

상자 안에는 크리스마스 장식품들이 잔뜩 들어있습니다. 흙이 가거나 철이 지나, 더는 쓰이지 않은지 오래인듯 하나같이 먼지가 소복히 쌓여 있습니다. 재채기가 가볍게 날지도 모르겠습니다. 유약을 바른 도자기 천사 인형, 깨진 크리스마스 전구, 색 바랜 반짝이 별... 이제 쓰지 않는 잡동사니 장식품들을 보관하는 상자일 뿐일까요?

탐사자들은 여기에 실망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장식품들을 모두 빼내고 나면, 상자의 진면목이 드러납니다.

탐사자들의 비밀과 관련된 물건들이 하나씩 숨겨져 있습니다. (이 물건들은 역시 키퍼가 미리 정해 놓습니다. 상자 안에 들어갈만큼 크기가 작은 편이 좋습니다.)

또한 안에는 작은 붉은 새틴 주머니가 있습니다. 주머니에 손을 넣으면 인간의 머리칼이 잡힙니다. 얇은 머리칼들이 손가락에 들려붙듯 감기는 감각은 펍 불쾌합니다.

주머니를 열어보면 그 안에는 잘린 머리카락들이 작게 한웅큼씩 뭉쳐 보관되어 있습니다.

머리카락 뭉치들의 수는 탐사자들의 수와 같으며, 색은 각각 탐사자들의 머리 색과 일치합니다. 또한 깎아낸 인간의 손톱 조각들도 수북하게 들어 있습니다. 제법 오래됐는지 색은 조금 누렇게 변해 있습니다.

KP 메모

KPC가 탐사자들을 변이시키는 술식을 거는데 쓴 탐사자들의 신체 부위입니다.

<침대 옆 협탁>

협탁 위에는 램프와 자질구레한 KPC의 물건들이 널려 있습니다. 20센트짜리 펄프 픽션, '비치 너트'깸, 코카 콜라 병뚜껑... (아주 사소한 사항이지만, 물건들의 종류는 KPC의 성격에 따라 바꿔 주셔도 좋습니다.)

협탁에는 작은 서랍 또한 함께 달려 있습니다. 서랍 안을 열어보면, 제법 엉망이군요. 그러나 갓은 잡동사니들 사이에 작은 도자기 트링켓들이 놓여 있는 것이 눈에 띄니다. 트링켓은 총 세개이며, 각각 트링켓에는 숫자가 적힌 라벨들이 붙어 있습니다.

- 금색 트링켓

1919.

훈장과 브로치가 들어 있습니다.

연녹색 브로치는 뱀의 형태를 띄며. 그 구불거리는 섬세한 형태는 당대 유행했던

아르누보 형식을 충실하게 따르고 있습니다. 브로치 뒷면에는 N.M이라는 이니셜이 새겨져 있습니다.(니콜 맥클라나한의 이니셜입니다)

- 녹색 트링켓

1937.

녹슨 라이터가 하나가 들어 있습니다. 만약 사용해보고자 한다면 라이터는 여전히 제대로 작동합니다.

두 트렁크에 들어있는 물건들 모두 KPC가 가지기엔 너무 오래된 물건 같습니다. 그에게 골동품 수집 취미가 있었던가요?

붉은색 트렁크

19__ (시나리오의 배경이 되는 년도)

탐사자들이 소유했던 작은 소지품들이 들어 있습니다. 너무 사소하기 짝이 없는 물건들이라 잃어버린 줄도 몰랐을수도. 작지만 소중한 물건이라 잃은 후 애타게 찾았을 수도 있지만, 어쨌든 탐사자들은 그 물건을 보는 순간 그것이 자신의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KP 메모

희생자들에게 모은 전리품들입니다.

<책장>

책장에는 (비치된 책들의 종류는 KPC와 KPC의 룸메이트 캐릭터의 취향에 따라 정합니다)

<자료조사>를 사용할 경우, 다음과 같은 책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현대의 풍습에 내재된 원시 신앙에 대하여: I. 체임버스 저술>

‘크리스마스’ 부분에 책갈피가 꽂혀 있습니다.

[크리스마스]

12월 25일은 율리우스력의 동지절로, 이 날을 기점으로 해가 점점 길어지고 밤은 짧아지게 된다. 이러한 성질로 인해 원래 12월 25일은 다양한 신을 모시던 이교도들이 저마다의 신에게 풍요를 기원하는 축일로 기능하곤 했다. 특히 중부 유럽에는 검은 대지모신에게 바치는 축제가 가장 널리 퍼져 있었다. 그들은 그날이 되면 인신공양을 비롯한, 현대의 시선에서는 다분히 잔혹하다 느껴질 제례를 진행했는데, ‘신의 혈족’을 간택하고, 간택된 이들이 직접 죽일 수 있는 인간 제물을 공양해 그를 ‘신에 가까운 모습으로 거듭나게 하는’

의식 역시 치루어졌다고 하나 관련 자료가 남아있지 않아, 이 흥미로운 제의의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할 방법이 없다.

기독교 신앙이 유럽에 퍼지게 되며 기존의 **12월 25일**은 지금처럼 아기 예수의 탄생을 기념하는 축일이자 우리에게도 산타클로스로 더 잘 알려진 성 니콜라스의 날로 자리잡게 되었다. 기독교가 퍼진 이후로 검은 대지모신의 숭배자들을 포함한 원시적 종교 세력은 점점 쇠퇴하여, 문명화된 지금은 그들을 찾아보기 힘든 지경에 이르렀다.

그러나 나는 동료 저술가 커크랜드와 크리스마스에 남은 이교 풍습의 흔적을 조사하던 중 흥미로운 가설을 발견하게 되었는데. 바로 ‘검은 대지모신’을 상징하던 동물 중 하나인 검은 염소가 민간에서 산타클로스의 동료이자 보조자인 ‘크람푸스’의 외형과 닮아있다는 것이다. 이 가설이 사실이라면 기독교는 과거 인간 문명의 새벽녘에 유럽인들이 모시던 신을 자신들의 성자의 발 아래 둔 셈이 되는 것이다.

<노스트라다무스, 크로울리, 라스푸틴>

탐사자의 주목을 끄는 것은 제 **13장**입니다.

[주술에서 섭식이 갖는 의미]

주술에서 섭식이라는 행위는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어떤 마법의 힘을 가진 물체를 섭식할 경우, 그 사람은 그것이 가진 마술적인 힘이 자신에게 영향을 끼치는 것을 허용하는 셈이 된다. 특히 초자연적인 존재의 힘을 그대로 내재한 체액이나 신체 부위를 섭취할 경우, 인간은 그와 같은 이질적인 존재로 변할 수도 있는 것이다. 가장 대표적인 예시를 흡혈귀의 피를 마신 인간은 저 역시도 흡혈귀가 된다는 민간 설화에서 발견할 수 있다.

반대로, 인간이 되려면 인간의 피나 살을 먹어야 한다. 저주에 걸렸다면 그것이 술자의 것이어야 한다. 이를테면 <열세마리 백조>에는 주인공 엘자가 백조가 된 오빠들에게 자신의 살을 먹여, 그들이 자신의 살을 먹어도 인간이 되지 않으므로 자신이 저주를 건 것이 아님을 증명하는 장면이 등장한다.

KP 메모

이는 탐사자들에게 자신의 모습이 변하게 된 경위와 다시 인간으로 돌아올 수 있는 방법에 대해 힌트를 줍니다.

<에그노그>

그들이 먹고 마셨던 것 중에서 **KPC**가 그들에게 준 것, '우유'가 들어간 것...이 모든 것에 해당하는 에그노그가 수상하다고 생각한 탐사자는 에그노그를 담았던 병을 다시 살펴보고자 할 수 있습니다. 바닥에 눌러붙은 남은 에그노그 찌꺼기는 어느덧 검은 타르처럼 끈덕지게 변해 있습니다. 탐사자들이 불과 몇시간 전까지 만끽했던 크림과 향신료의 부드럽고 향긋한 냄새 대신 형용하기 어렵게 불쾌한, 비릿한 짐승의 누린내가 풍겨나옵니다.

우리가 먹었던건, 대체 뭐죠? [SAN 0/1]

Here Comes Trouble

이 즈음에서 **KPC**가 삼(혹은 기름)을 나눠주러 돌아옵니다. 탐사자들이 자신을 추궁한다면, **KPC**는 둘러대다, 상황이 불리하게 돌아갈때쯤 달아나 버립니다. 정체를 들키는 것 까지도 예상하고 저지른 일이니까요.

별달리 추격 페이지를 진행하지 않고 **KPC**가 달아날 수 있도록 해주세요. 키퍼가 원한다면 **KPC**는 탐사자들에게 주문을 사용한 뒤 도망칠 수도 있습니다.

어쨌거나 어두운 복도로 도망쳐버린 **KPC**를 따라가던 탐사자들은, 이윽고 복도 끝에 다다라 발걸음 소리가 잦아드는걸 듣습니다. 그쪽으로 다가가면 '205호' 번호표가 붙은 방의 문이 가볍게 열려 있음을 눈치챌 수 있습니다.

문고리에는 억지로 힘을 가해 연 흔적이 있습니다.

But I don't wanna go

만약 탐사자들이 **KPC**가 그 쪽으로 달아났음에도 불구하고 205호로 가고싶지 않아한다면, 혹은 205호에서 조사를 진행하지 않는다면...1919년 12월 24일

205호에서 일어난 일의 단편을 환영으로 보여준 뒤 '205호'라는 번호표가 붙은 방문의 모습을 마지막으로 환영을 끝내, 그곳에서 유의미한 단서를 얻을 수 있을 것 같다는 예감을 유도할 수도 있습니다.

Baby It's Cold Outside

탐사자들은 동일한 사건이 일어났던 방, 205호를 조사할 수 있습니다. 이 페이지에서 그들은 이러한 일이 몇십년 전에도 KPC에 의해 일어났다는 확신을 갖게 될 것입니다.

방 안에는 먼지가 가득해, 들어서면 순간 재채기가 터져나옵니다.. 아직 전기가 들어오는지 먼지가 가득 쌓인 예스러운 황동 스위치의 버튼을 누르면 몇번 전등이 깜빡이더니 불이 켜집니다. 창문은 활짝 열려 있고, 그곳으로부터 차가운 바람이 스며들어오고 있습니다. 이 방에 들어온 KPC는 아마 무모하게도 이 창문을 통해 나갔음이 틀림없습니다. 창밖을 본 탐사자는 저 아래에 눈 위에 사람의 발자국이 찍혀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발자국은 숲 쪽을 향하고 있습니다.

...방 안에 들어온지 얼마 되지 않아, 탐사자는 어쩐지 뒷목이 서늘해지는 것을 느낍니다. 방 안은 오래간 난방이 되지 않아 몹시 춥지만, 이상하게 한기가 드는 이유는 그것만이 아닙니다. 게다가 여긴 기분 나쁘게 익숙합니다. 동요집에서 나온 사진을 봤던 탐사자들은 이곳이 사진 속의 방이란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비록 가구들은 다시 일으켜 세워졌고, 방은 지저분하긴 해도 애써 구색을 갖추고 있긴 하나. 사진에서 보았던 것과 많은 것이 일치합니다. 부서지거나 흠집이 남은 예스러운 가구, 낡아 색바랜데다, 검은 얼룩이 진 대학깃발, 벽에 걸린 캔버스가 찢긴 그림...게다가 벽과 바닥에 여즉 남은 거무스름한 자국이 이곳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말해주는 듯 합니다.

방 한쪽에 자리한 나무 상자에는 소지품을 정리하다 만 것처럼 갖은 잡동사니들이 한데 엉켜 쌓여 있습니다. 상자 가장 윗면에 놓인 <앨범>과 <갈색 가죽 표지 공책>이 먼저 눈에 들어옵니다.

책상 위에는 먼지만이 쌓여 있지만, 그 아래에는 미처 치우지 않은 듯한 쓰레기들이 즐비합니다.

또한 만일 KPC가 남성이라면, KPC가 리드와 곳곳에 KPC가 과거에 썼던 소지품을 배치해 둘 수도 있습니다. 탐사자들은 KPC의 취향인 물건이나, KPC의 필체가 남은 노트를 발견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앨범>

앨범의 표지는 닳아있고, 먼지가 소복히 쌓여 있습니다. 손으로 더듬어 보면 표지에 주인의 이름이 음각으로 새겨져 있습니다. 'Herbert Reed'

사진이 그렇게 흔하지는 않았던 시절인만큼, 앨범을 펼쳐보면 그 수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앨범의 주인의 가족처럼 보이는 1910년대의 평범한 가족 사진들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가운데, 다음 두 사진들이 탐사자들의 시선을 끄니다.

- 군복을 입은 남자를 찍은 사진입니다. 전쟁의 상흔인지, 남자의 왼쪽 입가에는 흉터가 길게 가로지르고 있습니다. 사진의 오래된 정도나 군복의 디자인으로 보아, 1차 대전 시기에 찍힌 사진 같습니다. 몇십년 전의 일이죠. 탐사자들의 할아버지 할머니나 기억하는 일이려나요?

- 아까 보았던, 군복을 입고 있던-그러나 이 사진에서는 민간인 차림을 한 남자와 마르고 유약해보이는 사내, 그리고 화려하게 차려입은 여자가 숲을 배경으로 찍은 사진입니다. 그들 옆에는 한 사람이 더 서있습니다.

네번째 사람을 보는 순간, 탐사자들은 잠시 말을 잃을 수 밖에 없습니다. 사진 속에서 미소짓고 있는 사람은...KPC가 아니던가요? 아니, 이건 무려 몇십년 전의 사진이걸요. 어떻게 KPC가 이 사진에 지금과 똑같은 모습으로 찍힐 수가 있죠?

하지만 이 사진 속의 사람은 KPC와 기분 나쁠 정도로 닮아있습니다.

이 기묘한 우연에 탐사자들은 위화감을 느낍니다. SAN 0/1

사진 아래에는 다음처럼 적혀 있습니다: [절친한 친구들. 허버트, 로니, 니콜 그리고 (KPC의 가짜 이름)]

<갈색 가죽 공책>

성인 남자의 손바닥만한 크기의 공책입니다. 안을 펼쳐보면, 개인적인 기록처럼 보이는 내용들이 드러납니다. 아마도 일기장 같은 용도로 쓰인 모양입니다. 앨범과 달리, 옛 주인의 이름(허버트 리드)는 첫 장에 적혀 있습니다.

<자료조사>판정에 성공한다면 수많은 일상의 기록들 사이에서 나름대로 도움이 될 만한 정보들을 발췌할 수 있으나 판정에 실패한다면 사소한 정보들에 정신이 팔려 정보 조사에

걸리는 시간이 조금 더 길어집니다. 그 사이에 변이가 조금씩 더 진행될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돌아왔다. 모든 것이 다 낯설다. 미소짓는 사람들도, 평화로운 거리도. 포탄과 비명소리가 들리지 않는 하루하루는 너무나도 낯설다. 더러는 나에게 훈장에 대해 이야기하며, 용감함을 치하하지만 나는 내가 겪어야만 했던 모든 일이 원망스럽기만 할 뿐이다. 국외로 파병되지도 않고, 훈련만 되풀이하다 전쟁이 끝난 사람도 많다. 로니만 해도 그랬으니까. 하지만 왜 나는, 그 전장에서 싸워야만 했을까.

-정말 그 아이를 그렇게 죽여야 했을까? 지금도 악몽을 꾸고 깨어날 때마다, 그 겁에 질린 눈이 어둠속에서도 나를 바라보는 것 같다. 그를 죽인 뒤. 고통과 공포가 그대로 서린 그 텅 빈 눈을 본 순간 알 수 있었다. 그 독일인 병사는 나를 죽이고 싶은 마음 따위 애초 없었다. 그저 내가 그랬듯이. 너무 혼란스럽고 두려워, 그저 이 포화 울리는 전장에서 사라지고 싶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나는 그를 총검으로 셀 수 없이 찔러 죽이고 나서야 그의 얼굴이 너무 앓되다는 것을. 그가 걸친 군복은 너무 크다는 것을 알아버렸다. 그저 어린애였을 뿐인데. 살려줄 수도 있었는데. 아니. 설령 죽이더라도, 그렇게 죽일 필요는 없었는데.

-(KPC의 가짜 이름)에게 이를 털어놓았다. 순전히 우연으로, 술김에 털어놓은 이야기인데도 그는 나를 혐오스러워하지 않았다. 내가 예상한대로, 어떻게 그 어린 아이를 그토록 참혹하게 죽일 수 있냐고 일갈하지도 않았다. 순간 제대한 이후로, 처음으로 위로받은 기분이 들었다. 연인이나 가족에게도 느낀 적 없었던 감각이었다.

-니콜의 일은 정말 유감스럽기 그지없다. 모두가 그녀를 비난하고 있다. 그러나 하나 확실히 해야 할 것은 그녀는 이미 자신이 저지른 일에 대해 크나큰 죄책감을 갖고 있다는 것이다. 내가 그 연인이어서 변호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다. 니콜은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다.

-니콜에게 (KPC의 가짜 이름)에게 이야기를 해보라 말해주었다. 니콜은 처음에는 머뭇거리다 곧 이를 긍정적으로 생각해보겠다 말했다. 그는 좋은 친구니까, 니콜의 마음의 짐을 덜어줄 수 있을 것이다. 게다가 (KPC의 가짜 이름)은 선불리 판단하거나 비난하지 않는다. 그저, 들어줄 뿐이다. 거기에 얼마나 큰 위로를 얻는지.

-니콜을 위로도 할 겸, 크리스마스 파티를 열 것이다. 음식은 KPC가 준비해오기로 했다.
KPC의 에그노그는 그리고 어쨌거나, 크리스마스 파티에 에그노그를 빼놓을 순 없으니까!
로니에게도 집에 내려가는 대신 여기 머물러 파티를 즐기자고 말했다. 사실 이 기회에
(KPC의 가짜 이름)과 로니도 좀 더 친해졌으면 하는 바람이다.

<신문>

굵히고 부서진 흔적이 여즉 남은 책상 아래에는 쓰레기들이 가득 쌓여 있습니다. 깨진
크리스마스 오너먼트라던가, 미처 치우지 않은듯한 구겨진 종이 뭉치들이라던가... 그러나
<관찰> 판정을 할 경우, 쓰레기들 사이에서 신문 한 장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신문은
1919년 12월 20일자 신문의 사회면입니다. 세월이 세월인만큼, 종이는 누렇게 변색되고
잉크도 많이 휘발되어 있습니다
제목은 “천재 소녀, 사실은 위작 전문가?”입니다.

<천재 소녀, 사실은 위작 전문가?>

[18세의 나이로 국립 디자인아카데미가 개최한 전시회에서 <루크레치아의 기도>가 주목을
받은 뒤 ‘천재 소녀’ ‘미국의 르브룅’이라 불려왔던 화가 니콜 맥클라나한의 위작 의혹이
제기되었다. 자신이 맥클라나한의 동향이라고 밝힌, 익명 처리를 부탁한 제보자는
맥클라나한이 몇년 전 동향 여성이 소유했던 화집을 절취한 뒤, 이를 바탕으로 수년간
위작을 제작하였다는 주장을 제기하였다. 맥클라나한 본인은 현재 어떤 의사 표명도 하지
않고, 쇄도하는 인터뷰 요청 역시 일절 거절하고 있다.]

기사에는 옅은 머리색을 한 여자의 사진이 함께 실려 있습니다. 앨범에서 보았던, 허버트
리드 옆에 있던 여성입니다. 트링켓을 조사한 탐사자는 사진 속에서 그녀가 한 브로치가
트링켓 속에 있던 뱀 브로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핏자국>

카펫이 깔려있지 않은 나무바닥에는 먼지가 소복하게 쌓여 있지만. 먼지 사이로 검붉은
자국이 얼룩진 것이 보입니다. 희미한 얼룩 사이에는 발굽 모양처럼 생긴 자국 또한
어지럽게 찍혀 있습니다.

KP 메모

발굽 모양 핏자국들은 완전히 변이한 허버트와 니콜이 방을 빠져나가면서 난 것입니다.

The Second Omen

탐사자들은 이때쯤 자신들의 모습이 점점 변해가고 있음을 더 강하게 느낄 수 있습니다. 중간중간 탐사자들이 한명씩 짐승과 가까워지는 모습을 묘사하며 긴장감을 고조시키세요. 아래는 키퍼가 활용할 수 있는 변이 증세들의 예시입니다. 2단계에서는 한명당 변이의 특징들을 2개 정도 갖게 되는 것을 적당하다고 판단했으나, 키퍼의 판단이나 시나리오의 진행에 따라 이를 달리 적용해도 괜찮습니다.

-격통과 함께 발가락이 한데 붙어 뭉치며 점점 딱딱해집니다. 확인해보면 살과 뼈가 뭉개져 발굽같은 모양이 되어 있습니다.

-등이 굽기 시작합니다.

-이마에 나 있던 작은 뿔이 점점 커지고 뒤틀리기 시작합니다. 이쯤되면 마치 산양의 뿔 같은 것이 머리에 난 것처럼 보입니다.

-귀가 완전히 염소 귀처럼 길고 뾰족하게 변형됩니다.

-손가락과 손톱이 기형적으로 길고 뾰족해집니다.

-이빨이 이제 짐승의 것처럼 완전히 뾰족해졌습니다. 거대해진 송곳니가 흉하게 튀어나옵니다.

-혀가 비정상적으로 길어지며, 혀끝은 마치 그림 속에서나 봤던 악마나 귀신들처럼 뾰족해집니다.

변이가 가속화되는 자신의 모습을 본 탐사자는 이성치 판정을 진행합니다. SAN [1/1d4]

Rudolph the Rednosed Reindeer

이 페이지에서 탐사자들은 KPC를 쫓아, 혹은 시체를 묻기 위해 숲으로 향하게 됩니다.

바깥은 피가 얼어붙을것 같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춥습니다. 매서운 칼바람이 탐사자들의 뺨을 할퀴어댁니다. 손전등이 간신히 빛을 밝히지만 눈보라가 너무도 거세 눈을 뜨는 것도 힘겹습니다. 흰 눈 덮힌 숲은 바람소리를 제외하고는 기이할 정도로 고요합니다. 금새라도 앙상한 검은 나무들 사이에서 무언가 튀어나올 것 같습니다.

탐사자들이 도망친 **KPC**를 추적하고자 한다면 <추적>기능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탐사자들이 추적 기능을 갖고 있지 않다면 <관찰>로 대체 역시 가능합니다. 판정에 성공할 경우, 숲 안쪽으로 향하는 인간의 발자국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발자국 외에도... 눈 위에는 발굽 자국들이 어지럽게 찍혀 있습니다.

만약 탐사자들이 탐사자들이 터커의 시체를 처리하기 위해 숲으로 왔다며 시체를 처리한 뒤, 그들은 어둠속에서 잔가지들이 서로 부딪히며 내는 부스럭 소리를 듣고. 반면 탐사자들이 **KPC**를 추적 중이라면, 그들은 염소 발자국을 발견한 후 얼마되지 않아 무언가 나무들 사이에서 움직이는 소리를 듣게 됩니다.

소리를 듣고 나서 얼마되지 않아, 속이 메스꺼워지리만치 비릿하고 진한, 사향의 누린내가 차가운 바람에 실려옵니다.

그리고 어둠 속에서 거대한 두 형체가 드러납니다. 보통 사람보다 머리 한두개는 더 큰것만 같습니다. 거대하고 뒤틀린 뿔, 주름지고 변질된 피부. 잔뜩 늘어진 그것의 길고 검은 털 사이로 악의에 가득 찬 노란 눈동자와 네모난 동공이 드러납니다. 그 안에서는 마치 화염이 끓어오르는 것만 같습니다. 그것들이 천천히 입을 벌리자 문드러진 입술 사이로 칼날같은 이빨이 드러납니다. 반은 악마, 반은 염소의 모습. 그림 속의 크람푸스가 그대로 그들 앞에 모습을 드러낸 것만 같습니다. 방에서 창문으로 이들을 보았던 탐사자라면 지금 눈 앞에 나타난 괴물이, 자신이 보았던 '루돌프'라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크람푸스의 혈족을 직접 본 것으로 인해 **SAN [1/1d6]**

개중 한 마리의 왼쪽 입가에는 길게 흉터가 남아 있습니다. 앨범에서 허버트 리드의 얼굴을 본 사람들에게 이 흉터는 익숙할 것입니다. 그 옆에 있는 다른 한마리가 원래 누구였는지 추리하는 것도 그다지 어려운 일은 아닐겁니다.

이쯤에서 탐사자들은 이 괴물들이 사실 **1919**년에 이 학교에 있었던 니콜과 허버트일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증명하기라도 하듯, 탐사자들의 모습 또한

점점 인간의 형태에서 멀어집니다. 이 즈음, 혹은 바로 다음 페이지에서 탐사자들은 확연히 인간이 아닌 무언가처럼 보입니다. 이제는 뚜렷한 변이의 징조가 세개 정도 드러납니다. 변해가는 탐사자들의 모습을 묘사해주세요.

O come all Ye faithful

크람푸스의 혈족들이 그 모습을 드러내고 탐사자들은 점차 이형의 괴물이 되어가는 가운데, **KPC**가 이 혼란스러운 무대에 재등장합니다.

KPC가 만일 탐사자들로부터 달아났다면 여기서 다시 나타나게 해주세요. **KPC**는 기본적으로 혼자 등장하나, 만약 난이도를 높이고 싶다면 **KPC**는 옆에 1d3명의 사교도를 대동할 수 있습니다. **KPC**는 탐사자들이 알고 있던 그 상냥한 친구같지만, 동시에 어딘가 묘하게 고압적인 태도로 탐사자들에게 자신과 함께하자고 설득합니다 그들은 자신의 죄로 하여금 선택받은 셈입니다. 이제 그들은 신과 가까운 모습이 되어, 숭배받으며 살 수 있습니다. 더는 인간적이고 너절한 죄책감에 매달리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이 즈음에서 탐사자들은 **KPC**의 처분을 어떻게 해야할지 결정해야 합니다. 그들의 친구는 그들을 괴물로 만들었고, 그 친구의 피나 살을 섭취해야만 다시 인간으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물론 **KPC**를 해치고 싶더라도, 그의 곁에는 두 괴물이 있으므로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 페이지에서는 전투가 진행될 확률이 높습니다.

KPC는 가능한 탐사자들을 죽이는 대신, 기절시키거나 제압해 그들을 끌고 가려고 합니다. 그는 기본적으로 육탄전은 피하고, 대신 크람푸스의 혈족들을 내세울것입니다. 필요하다면 키퍼가 정한 주문 중 일부를 사용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전투의 난이도를 쉽게 조정하고 싶다면 탐사자들에게 변이가 3단계까지 진행된 탐사자들의 근력/민첩/건강 수치 중 1개를 90으로 상승시켜 주세요.

CONCLUSION: Silent night

이 페이지에서는 도출될 수 있는 결론들의 예시를 서술합니다. 키퍼는 이들을 참고해 후일담을 작성하면 됩니다.

탐사자들이 **KPC**의 피나 살을 섭취했다면 다시 인간의 모습으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다만 피 몇방울, 손톱 거스러미 정도의 미량은 효력을 발휘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KPC가 이 과정에서 죽어버렸다면 크람푸스의 혈족들은 전투를 중단하고, 어둠 속으로 돌아가버립니다.

탐사자들이 시체(혹은 시체들)을 잘 처리하고 증거들 또한 적당히 처리하기만 한다면, 아무도 이 일에 대해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이로 인해 탐사자들에게는 또다른 비밀이 하나 더 생기게 되었습니다. 키퍼가 원한다면, 탐사자들은 이후 크람푸스의 교단에게서 집중적인 감시를 받게 될 수도 있습니다. 어쨌거나 그들은 교단에 해를 입히긴 했으니깐요. 탐사자는 다음 해, 어쩌면 몇년이 흘러 졸업한 후에도 크리스마스마다 의문의 발신인으로부터 크람푸스가 그려진 카드를 받게 될지도 모릅니다. 다른 이들에게는 마냥 행복할 축일은, 이제 탐사자에게는 악몽같은 날이 될 것입니다.

탐사자들이 만약 죽었다면, **KPC**는 다른 후보자를 찾겠죠. 하지만 죽음이 끌려가는 것보다 나을지도 모릅니다. **KPC**에 의해 끌려가거나 **KPC**에게 설득되어 그들과 합류한 경우, 그들은 차차 인간으로서의 자의식을 잃어갑니다. 곧 그들은 자신이 누구였는지, 크리스마스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도 잊게 됩니다. 그들은 교단에서 불온한 숭배를 받으며 여생을 보내게 될 것입니다.

시나리오 후기

하여간 어쩌다보니 두번째 크리스마스 소재의 시나리오를 써버렸는데...크리스마스에 대해 크툴루적인 해석을 가미하는게 이 시나리오를 쓰면서 가장 즐거웠던 부분이네요.

개인적으로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는 것들 아래 모독적 진실이 숨어있다! 이런 전개를 매력적으로 느끼기도 하고요.

그나저나, 이 시나리오를 플레이할때 가장 곁들이기 좋은 간식은 역시 에그노그가 아닐까
싶습니다. 간단하고, 맛있고, 슈브 니구라스의 젓이 들어있지 않는 한, 흥측한 무언가로 변할
일도 없고요.

그럼 미리 메리 크리스마스 되시길!